"광대무변한 마음 왜 좁게 쓰는가"

공부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요

문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공부에 들어가야 할지 체계가 서질 않습니다. 스님 말씀에 의하면 모든 걸 주인공에 맡기고 주인공을 믿으며 나의 생각을 내려 놓으라 하셨는데 내려놓는다 함은 그 순간 순간에 비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자기 마음을 순간순간 들여다보면서, 전에 책에서 일체처 일체시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뭐꼬' 하고 반조한다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답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시공이 없고 또 진리가 체계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은 체계가 있는 게 아니라, 즉 말하자면 어디 갔다 밤중에 와도 내가 불을 켜려면 불을 켜는 것처럼, 무슨 시간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늦게 오든 일찍 오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켠다는 거죠. 그리고 하고싶은 대로 물건을 이쪽에다 놓으려면 놓고 저쪽에다 놓으려면 놓는 겁니다, 자유예요. 누가 여기에만 놓고 살아라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도리를 알면 오히려 계율도 더 잘 지키게 되나, 이 도리를 모르면 계율을 참답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의 계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리나 의리, 사랑, 자비 또는 모든 상식과 교양 모두를 종합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나가는 그러한 결단성이 있는 것이고 스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계율을 지녀야 한다고 조금도 애착을 가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또 '나쁜 꿈을 꾸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이러거든요. 아니, 꿈뿐이겠습니까? 우리 살아나가는 것이 다 꿈이자 생시고 생시이자 꿈인데요. 아니, 몸뚱이 속에서 다 업으로 인해 나오는 건데 나온 거기다가 모든 걸 다시 놓으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꿈도 거기서 나온 거고 생시도 거기서 나온 거다 이겁니다. 사는 것도 거기서 나온 거고 내가 형성된 것도 거기서 형성이 된 거다 이 소립니다. 그럼 거기 다 놔야죠. 거기 맡겨 놔야 하는 겁니다. 어린 자식들이 부모를 믿고 의지하듯이 배울 때는 그래야 합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는요. 어른이 되면 그때는 위도 알고 아래도 알면서 평등한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그때는 그냥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프면 밥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똥 누고 싶으면 똥 누니 얼마나 시원하겠소?

그렇게 자꾸 하면서 거기 한 군데다가, 한 군데로 들고나는 것이니까 한 군데에다가 몰록, 거기다 대놓고 부드럽게 해 줘요.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일체가 다 한마음에서 나고 든다는 것을 알면 진짜로 믿고 넘어가야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놈이 뭣고' 하고서 천년, 만년을 있다한들 맛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성불을 상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성불을 상봉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부드럽게 대해주고 상대방에게 원한을 사게 하지 말고, 마음에 나쁘게 하지 말고 욕심부리지 말고 자기 고삐를 자기가 쥐고 다스리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릇이 비고 담기고 비고 담기고 해서 빈 것도 없고 담긴 것도 없이 됐을 때에 비로소 홀연히 그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내면의 공한 자리에다 다 놔 버리되 그 공마저도 없더라는 것이 나올 때까지 다 놔 버리라구요. 그러면 화두를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그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생겨난 자체가 다 화두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그 화두가 바로 '공(空)'이니까, 자기이자 '공'이니까, 그 '공'의 중심을 잡은 작대기에서 모든 것을 들고나게 하는 그 '참 자기'를 내면에서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팔도 하나가 없고, 눈도 하나가 없고, 귀도 하나밖에 없고, 다리도 하나밖에 없을 때 반드시 지팡이를 짚어야만 되니까 작대기를 짚는 거죠. 그래, 그 작대기에다가 모든 걸 일임해서 들고나는 것이 거기에서 난다고 할 때 결국은 거기에다가 스스로 다 놓게 되는 것이죠. 놓게 해서 그게 다 놔졌을 때 스스로 거기에서 샘물이 나올 땐 쥐었던 작대기마저도 놓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깨우

> 자성불과 상봉하려면
> 모든 걸 자기탓으로 돌리고
> 상대방에게 원한을 사게
> 하지 말고 부드럽게 다스리며
>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깨우쳐 가지고 진짜 그때는 대의정이 날 수도 있고, 전체가 의정이 아닐 수가 없고, 화두 아닐 수가 없고 나 아님이 없고, 그랬을 때에 비로소 안으로 굴려서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 참선이라 그러는 겁니다. 일상 생활에서 터득하고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샘물이 났을 때에 물이 한 물인 줄 알았더니 전체 사방에서 다 물이 나오는 걸 보자 어떠한 샘물이 내 샘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붙지 않는 자리지마는 질문을 하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라도 대답을 할 수밖에 없군요.

나쁜 습관 없애고 싶습니다

문 나름대로 나를 지켜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저의 나쁜 습이 보입니다. 관념과 틀이 강하고 남을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고, 법에 대한 의심이 많고,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요. 하지만 이렇게 나의 단점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그것을 다뤄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나쁜 습관이 보일 때마다 주인공에 맡기면 저절로 없어지는지요? 얼마나 그렇게 수행을 해야되는지요? 갑갑합니다. 부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그건 과거에 살아왔던 습성이 나오는 건데 그걸 왜 거슬리게 생각을 합니까? 그냥 비죽이 한번 웃어보세요. 그 어떠한 생각이 나오든지 거기서 나오는 줄 알면 그냥 웃어버릴 수가 있고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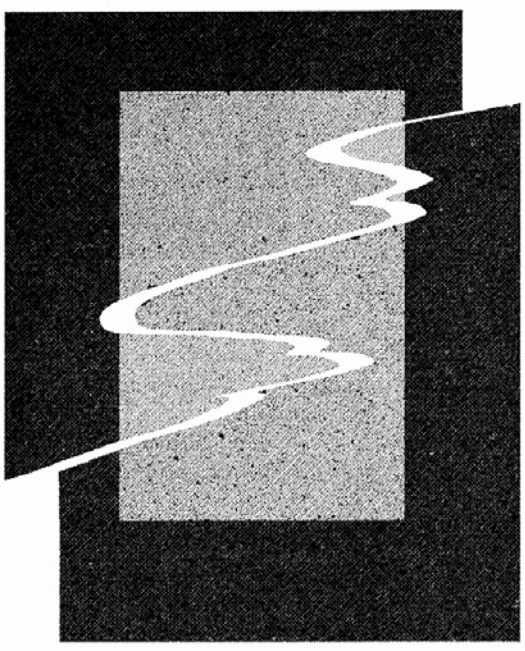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주인공이 모두 한다는 걸 놓치지 말도록

자기 주장자 믿고 살면 잘못되는 일 없어

그렇게 나오면 '허! 나는 그렇게 해도 속지 않어! 화해서 나오는 거잖아.' 하고 다시 나온 자리에다 돌려놓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이 화해서 모습을 바꿔 가지고 자꾸 찐드기를 놓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꾸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런데 가르쳐 주려고 주인공 자리에서 일부러 그런 거를 가지고 거기에 끄달리면 어떡합니까? 끄달리면 속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팥죽 얘기를 가끔 하는데요. 팥죽 솥에 팥죽이 끓는데 방울방울이 따로따로 있습니까? 다 한 솥에 죽 방울이지. 그러니까 그 죽 방울은 한 죽 솥에서 나오는 거니까,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나갈 것도 없으니까 하는 생각이 나면 비죽이 웃음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될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이 도리가 아주 묘법이라는 것은,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닥친다는 겁니다. 그놈이 일거일동을 다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걱정할 게 없어요. 즉 말하자면 모든 직원들을 커버하고 이끌어 가지고 가는 것은 결국 회사의 주인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를 이끌어 가는 중역의 소임을 맡았다고 그래서 전체 회사를 걱정할 필요는 없지요. 그런데 왜 걱정을 합니까? 중역으로서의 나 할 일만 하면 되죠. 그렇게 걱정을 하게 되면 묘법이라는 게 홱 돌아서 구정물이 생기게 돼 있고, 또 한 생각이 더럽고 깨끗한 거를 떠난 청정이라면 그냥 한순간에 깨끗한 물로 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공부한 것이 오년이다, 십년이다, 또는 일년이다, 몇 달이다 이런 생각도 말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잘했다 못했다, 내가 부처가 꼭 돼야지 하는 것도 그러한 욕심을 갖는다면 정말 부처가 못됩니다.

그러니까 한생각 내는 게 묘법이다 이런 거죠. 이름해서 중도요, 중용이요, 자재법이다 이겁니다. 또 자재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재력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바다와 같아서 내가 흐른다고 할 수도 없고 남이 흐른다고 할 수도 없는 도리에서 똥물에도 젖고 빗물에도 젖고 핏물에도 젖고 고름 물에도 젖듯이 그냥 한바다의 물일뿐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두지 마십시오. 그냥 적응해 들어가십시오.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그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이렇게 하는 것도 거기서 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요. 모두가 거기서 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의심없이 믿고 진실하게 그 자리에 맡겨놓으세요. 그러면 갑갑하다는 것 마저 찰나찰나 바뀌어 돌아가는 것이기에 본래 붙을 자리가 없음을 알게 되실 겁니다.

바보 같은 삶 벗어나고 싶어

문 텅 비어 있다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미련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아 열심히 매진도 해보고 전부를 걸고 해보겠다는 각오로 뛰어든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세상 속에 묻혀 모두와 더불어 정말 기쁜 마음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시작했는데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들에 끄달리며 아득히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안정된 직장과 가정생활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은 느끼지 못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에 가졌던 지극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인공을 만나야 하는데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고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이 위안이 되어 항상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로 살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바보 같은 삶은 벗어나고 싶습니다.

답 그것도 마음이에요. 마음은 광대무변해서 자유스럽게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살라고 자유스럽게 해놨어요. 아, 그런데 왜 마음을 자유스럽게 쓰지 못하고 그렇게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는 답답하게 생각하고 얼른 공부가 안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움켜쥐고 그럽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자기 탓이죠. 주인공이라는 것은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됨이 없이 끊임없이 돌아가니까요. 보는 거 듣는 거 모두가 고정됨이 없으니까 주인공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되놔라 이랬습니다. '네가 저지른 거라면 네가 해결할 수밖에 없잖어. 생각을 잘못 돌아가게 해서 잘못된 거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도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하고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놓는다면 몸 속에 있는 모든 의식들이 털구멍을 통해서 나가 다 조절을 하는 겁니다, 둘로 보지 않으니까요.

주인공하면 전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니까 개별적인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포괄적인 자기가 되는 거죠. 몸 속 생명의 의식들도 다 자기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러지 않는다면 성품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감응도 될 수가 없구요. 만약에 타신을 찾아서 어떠한 일이 생기거나 보이거나 들린다면 그건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안에 자기 주장자에 의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없어요. 올바르게 생활을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하는 데도 안된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주인공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재주부리는 짓을 하니까 그게 안되죠. 진짜로 자기인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래서 과거에 살던 자기가 현실에 사는 자기와 둘이 아닌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거죠. 고인 물을 그냥 둔다면 썩어버리지마는 자꾸 새 물이 들어오고 고인 물이 나가고 한다면 그 물은 아주 청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지 않는다면 목석이 되는 것이고 또 발전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내면서 자꾸 굴리면 물리가 터지고 지혜로운 생각이 넓어져서 자기 주인공의, 즉 말하자면 자기의 성품을 발견하는 거죠.

하여튼 사람마다 먹고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안달박달을 하고 살지 마세요. 인생이 한 철이에요. 우리가 인생 한철을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살고, 또 망망대해에 배 띄어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살지 마시고 좀 너그럽게, 망망대해를 가다가 빠져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다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저 라면 한 그릇을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주나 또 누른 밥을 반 그릇 갖다주나 먹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별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좋은 거 해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먹자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파탄을 일으켜요. 생기면 생기는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는 거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사는 거죠.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 속에서 살아도 그저 물이 집이 돼주고 끝없이 유유하게 흘러가면서 날 보고 살아라, 나 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냐 이래요. 산은 산대로 묵묵히 나 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그런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그렇게 해나가신다면 오히려 인생 한철동안 공부하시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 돌아가는 그 위치의 권한으로 모두를 다 건질 수 있는 묘법이 나오니 참으로 묘법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정 없는 현실이 없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온 자리를 알아야 하고, 나온 자리를 알아야 가는 자리를 알고, 가는 자리를 알아야 지금 있는 자리를 알아요. 그러니 열심히 법회에도 참석하고 스님들께 자꾸자꾸 여쭈어 가면서 걸음걸음을 내디디세요. 내가 몇 년을 공부했다, 내가 얼마나 절에 다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알았지요? 아는 거는 아는 것대로 놓고 모르는 건 모르는 것대로 놓고 지켜보고 실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그대로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해 보고, 말하고 행동하고, 모두 가고 오면서 지켜보고 이러는 게 다 참선이라는 뜻이에요.

없는 마음을 어떻게 공부하죠

문 저는 위없는 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달마스님께서는 무심이 곧 견성이다. 견성이 성불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마음을 닦는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없다하니 이해가 잘 안됩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마음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가르침을 바랍니다.

답 그럼 그것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죠. 세상에 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마음을, 그리고 고정된 게 없는 마음을 어느 누가 거기 와서 붙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감히 그 마음이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붙을 자리가 없는 자체가 시공을 초월했고, 고정됨이 없이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자체입니다. 금방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또 "여보"하니깐 남편이 되고 이러듯이 그렇게 그냥 돌아갑니다. 그렇게 그냥 여여하게 돌아가요. 한 바다의 물이 지구를 끼고 돌아가듯이.

그렇듯 아무것도 붙을 게 없이 여여하게 돌아가는 마음인데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게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꿈을 잘못 꾸어

☞ 20면으로 계속

가슴 깊은 언덕을 넘도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앞이나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